

창간 기념사

신문이 국가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 왔고 또 그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세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국가권력의 3권분립이 아닌 4권분립의 제4권부를 자처해 온 것으로도 신문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했던 것인가를 잘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종류의 신문이든 그것이 지향하는 방향과 철학에 따라 관련 조직이나 사회에 단순한 정보의 전달 뿐만 아니라 여론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정책결정에도 다소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남북한 UN동시가입, 소련연방의 해체, 10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 등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한국과학기술원은 개원 20주년 행사를 성공리에 치루었으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분원의 산학제, 연구원 석·박사과정 개설과 신입생 모집 그리고 1995년 개교목표로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 준비 등 그 어느때 보다도 활기차

고 결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는 과학영재 교육의 체계화 현대화 추진, 연구기능 확대 발전 및 활성화, 산·학·연 협동의 중추적 역할 수행, 그리고 외국 기관과의 협력 체결을 통한 국제 협력강화 등을 기본 목표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이르러 선진 G7에 진입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신문이 수행해야 할 역할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항상 과기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인식하면서 구성원들에게 창조를 위한 활력소를 제공하고, 교수, 학생, 직원간의 활발한 대화를 통한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미래를 향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토론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선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정립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창간 4주년을 맞이하여 지면의 증면, 판형크기, 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참여, 전산시스템 도입 등 몇가지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 하였고,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다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대열에 서서 이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신문이 되어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21세기의 문턱에서 조국의 앞날과 과학기술원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동안 신문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2년 2월 1일
원장 천성순

새해를 맞는 학우들에게

창조와 패기로 흘러넘칠 과기원

매서운 칼바람과 눈보라로 인해 '자연의 낯은것이 절대 건널 수 없다'는 겨울의 한복판에서 저 자신과 우리 과기원의 일년을 돌아보며 밝아오는 임신년 새해를 계획해 봅니다. 겨레의 설이 음력이어서 한해의 시작이 두 번 있다는 격, 끊어오르는 혈기와 패기로 인해 자기의 능력을 넘어선 무모한 계획을 세우기 좋아하는 청년들에 대한 웃어른들의 따스한 배려인 듯합니다. 저 또한 한 달 동안 생활해 본 1월 1일 계획을 평가하고 그 가능성과 실현성을 주어진 환경에 따라 자신의 능력과 처지에

맞는 다듬어진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이제는 '인식의 내면으로서의 실천'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텅 빈 학생회실에 앉아 가지만 앙상한 침묵의 교정을 바라 보며 어둠과 병존하는 밝음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그러면서 창조와 패기로 흘러 넘칠 새해의 우리 과기원을 확신합니다.

밝아 오는 임신년 새해를 설레임과 기쁨으로 맞이 하여 과기원 모든 가족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기쁨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른들과 형님들에게겐 죄송하지만 겨울의 학교를 지키며 생각해 둔 우리 학

부 이전 학우에게 드리는 총학생회장 새해 당부의 말로 대신하려 합니다.

첫째, 우리 과기원을 사람 내음 물씬 나는 삶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아직 우리 대학을 자기 고유의 활동 방식과 나름의 문화를 가진 공동체라 부르기엔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더구나 과학, 공학을 공부하는 타인지. 인간적인 삶의 아름다운 현장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기숙사 옆방에 누가 사는 지도 모르는

건강하고 패기 넘친 우리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국이 우리 앞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과학자·공학도입니다. 즉 우리의 두 어깨에 국가경제 생산력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외세의 수입개방 압력과 선진국의 자본 침투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기술자립의 문제는 더욱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민족

구의 한길을 달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과학·공학 지도자로서 올바른 세계관을 세우고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할 건강한 정신 문화적 소양을 쌓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조국이 부여한 우리의 사명에는 예비 과학자·공학도로서의 사명도 있지만 겨레의 아들 딸로서 조국의 역사를 책임져야 할 사회 역사적 임무 또한 존재합니다. 이것은 겨레의 최선두에서 사람의 주인된 권리를 박탈하는 사회적 불의를 반대하고 사회 정의를 옹호하며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청년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부르짖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그 노력을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기원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새해 인사를 마음속의 세배와 함께 드립니다. 더욱 더 건강한 얼굴과 많은 이야기로 다시 만날 춘삼월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 과기원 가족 모두의 건투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7대 총학생회장
라 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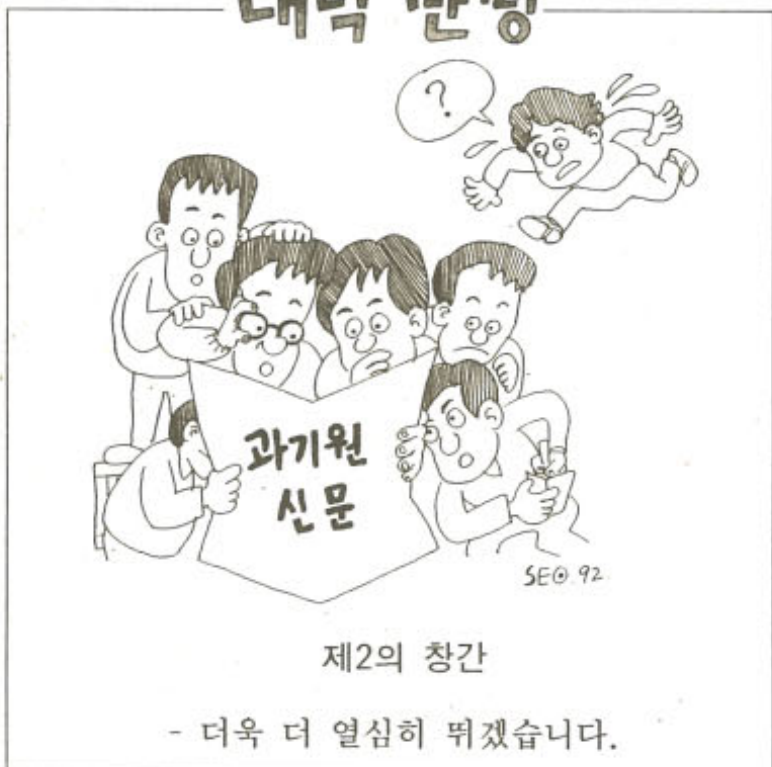
예비 과학자·공학도 사명을 다해야

우리의 현실은 갈수록 인간이 병들어 가는 우리 시대의 비극을 절감하게 합니다. 이래선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는 내 옆에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입니다. 공동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서 사람간의 관계가 의리와 우정, 사랑이 기본을 이루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주인되어 모두 함께 풀어나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전학우 모두는 동료들의 벗으로서 부족함이 없는지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며 선배들은 후배들의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는 높은 각오로 후배들을 성심성의로 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 대학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 자주적인 통일 조국을 건설해야 할 우리에게 민족자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7천만 겨레의 존망과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일을 책임져야 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조국의 운명과 자기가 공부하는 과학·공학의 관계를 옳게 풀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공부에 개인적인 의미 이상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미래의 햇불이 되고자 진리탐구에 자신의 청춘을 불사르는 청년의 패기와 기백을 우리들 속에서 찾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의미로서 과학·공학은 임신년 새해의 우리 것이어서 안됩니다. 우리 조국의 과학·공학의 운명이, 미래 국가 경제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다같이 진리 탐

이번 호부터 바뀌게 된 1면 제호 디자인 및 칼라선정을 해주신 산업디자인학과 권은숙교수님과 남택진군에게 감사드리며 전산시스템으로 편집 조판작업을 도와주신 삼원컴퓨터 교육부의 김경희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덕 만경



제2의 창간

- 더욱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